

전자자료 공정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

학술정보개발과 최미순, 주혜연

1. 들어가면서

최근 중앙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전자자료의 대량 다운로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모든 전자자료는 발행사와의 협약사항(License Agreement)에 의해 제공·이용되고 있으며 발행사는 '공정 이용(Fair Use)'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료의 대량 다운로드 및 부정 이용¹⁾을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²⁾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전자자료 부정 이용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자자료 공정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연구 및 데이터 마이닝 관련 연구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연구자들은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점차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학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 관리 부서에서는 구독 중인 전자자료의 공정 이용 기준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연구 형태의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자자료 공정 이용을 위한 홈페이지 안내 강화, SSO 인증방식 도입,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자자료 공정 이용의 현황 및 문제점, 특히 전자자료 부정 이용 사례 중심의 개선 내용 등을 기술하였으며, 향후 연구 동향을 반영하는 공정 이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전자자료 구독 및 주요 출판사 계약사항

2022년 중앙도서관의 학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매년 막대한 비용을 학술연구 자료 확충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자료들은 협약사항(License Agreement)에 의해 구독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전자자료들은 출판사와의 협약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구성원은 해당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전자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출판사의 구독 계약서에는 대량 다운로드 및 부정 이용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협약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허가된 분량, 목적, 이용범위 및 이용자 등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 혹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을 부정 이용으로 본다
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허가된 분량 이상의 논문이나 전자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예외 없이 부정 이용으로 본다

가. 일반적인 문구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의 88%³⁾는 해외자료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협약사항 역시 출판사가 있는 국가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협약사항에는 대부분 공정 이용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 원칙 및 저작권 준수’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표현 방식과 문항 수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유·재배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량, 목적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주요 출판사의 계약사항 관련 문항은 아래와 같다.⁴⁾

표 1 일반적인 공정 이용 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 재생산하는 경우 이용하는 자료의 양은 최소한으로 제한함 ·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서비스에 포함된 합리적인 분량의 자료를 디스플레이 및 이용 가능 · 내부적 혹은 개인적 이용 목적으로 합리적인 분량의 자료를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 · 저작권 및 기타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출판, 배포, 판매, 이용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의 게시 혹은 공유, 비 구독기관 및 그 사용자의 접속 허용은 엄격히 금지함 · 전체 혹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정기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어떤 형태로든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분의 컬렉션을 만드는 행위 금지
--

나. 데이터 마이닝 관련 문항 및 정책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출판사들이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연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혹은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조항까지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Text and Data Mining(이하 TDM)은 텍스트와 데이터 분석에 자동화된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패턴, 추세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우리 대학에서 구독 중인 전자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출판사별 계약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계약서상에는 TDM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이용이 허용된 범위를 명시하는 항목에서 언급되고 있다. 계약서에 TDM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행위 및 이를 활용하기 기계학습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래 [표 2]는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이 문항들 역시 [표 1]과 같이 비밀 유지 조항에 의해 계약사항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TDM 정책과 관련된 문항들을 여러 계약서에서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3) 2023년 1월 기준 중앙도서관에서 구독·관리 중인 총 150종의 학술 DB 및 전자저널 패키지 중 132종이 해외자료이다

4) 출판사와의 계약사항은 비밀 유지 조항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러 계약서 중 공정 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항들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표 2 TDM 관련 문항

-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메타데이터 수집은 허용되지 않음. 연구 접속 권한이 있는 경우 콘텐츠별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허가된 경우 학습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메타데이터 수집하는 행위, 또는 제3의 기술이나 알고리즘과 제품을 결합하여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행위는 불가함
-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나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검색, 추출, 딥 링크, 색인 등을 하는 것은 불가함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 출판사들은 일반적으로 TDM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 하에 빅데이터 기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출판사별 TDM을 위한 데이터셋 제공 여부 및 조건, 정책 등이 상이한 만큼 관련된 정책 역시 갈수록 세분되고 있다. 비용을 부과하거나 데이터셋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하기도 하며 다운로드할 수 있는 IP를 허가된 특정 IP로만 제한하는 등 출판사마다 이용조건과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출판사가 공통으로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래 [표 3]은 연구 목적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는 출판사들과 각 출판사의 세부 조건들을 비용 발생 여부와 제공방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⁵⁾

표 3 출판사별 TDM 정책

비용	제공방식	출판사	세부 조건
무료 제공	API	Springer/Nature	원문 전체 제공, 별도 계약서 작성 필요
		Sage	CrossRef API 이용, 요청 건수 제한(6초에 1건)
		Taylor&Francis	연구 개요 및 세부 수집계획 제출 학내 IP 하나를 지정 후 해당 IP에서만 이용 가능
		Wiley	논문 DOI 정보 필요, PDF 형태로 제공
	데이터셋	AAAS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사전 허가 필요
		JSTOR	Constellate라는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
		Oxford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 제공
API, 데이터셋	PubMed	다양한 데이터셋과 분석 도구 무료로 제공	
유료 제공	XML	ACS	구체적인 연구 범위 및 세부 활용계획 제출 후 비용 산출
		GALE	별도의 계약서 작성, US \$500~\$1,000 비용 발생

5) 202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이후 출판사별 정책에 따라 세부 조건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3. 전자자료 공정 이용 위반 현황 및 사례

대량 다운로드는 학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 이용 사례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대량 다운로드가 계약사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러 건의 논문을 다운로드 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을 수집하는 등 학내에서의 부정 이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량 다운로드를 판단하는 기준이 출판사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책 한 권 전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저널 하나의 이슈에 있는 논문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는 경우 대량 다운로드라고 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해당 기준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기준을 공개하게 되면 구독 기관이 대량 다운로드로 인한 차단 발생 직전까지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인지하고,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논문을 읽거나 다운로드 한다면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부정 이용 이용자의 정황을 청취해보면 의도적으로 대량의 논문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 이용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밝힐 위반 사례들은 부정 이용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로 이용자들이 부정 이용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가. 학내 부정 이용 현황

구독 전자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사항 검토와 출판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TDM 정책과 관련된 계약 조항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해당 분야의 학문이 발전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추측된다. 구독 전자자료를 수집·이용한 연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대량 다운로드로 인한 부정 이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대학교에서는 대량 다운로드 및 부정 이용이 총 14회 발생하였으며 출판사별 발생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4 2022년 출판사별 부정 이용 발생 빈도

출판사명	발생 빈도
Taylor & Francis	4회
American Physical Society (APS)	3회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AIAA)	3회
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 (EMBO)	2회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CM)	1회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UCP)	1회

위의 표와 같이 부정 이용이 발생한 출판사는 상이했으나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많은 양의 자료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는 대량 다운로드로 인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부정 이용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겠다.

나.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논문 다운로드

EndNote, Mendeley와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은 논문작성 및 연구에서 참고문헌을 관리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논문 원문을 수집하여 저장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논문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수십 건의 논문 원문을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받는 경우도 출판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 이용으로 간주한다. 대량 다운로드 및 부정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클릭이나 브라우징 등의 속도가 사람의 동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며, 세부 기준은 출판사마다 상이하나 보통 1초 미만의 속도로 일정 시간 동안 연속적인 다운로드 및 클릭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 이용으로 보고 있다.

다. 공유기를 사용한 전자자료의 이용

하나의 공유기를 사용하는 연구실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출판사의 저널에 접속하여 열람한 경우도 대량 다운로드 사례로 보고되었다.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서는 하나의 IP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출판사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각자 다운로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출판사에서는 이를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의 접속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출판사 서버에서 자동으로 부정 이용으로 감지하고 해당 IP를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한 출판사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다운로드

Python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제작된 별도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전자자료를 다운로드 하거나, 웹 크롤러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는 경우 모두 부정 이용으로 보고 있다.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부정 이용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에는 앞선 사례들과는 달리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여겨져 보다 엄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학내에서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논문 데이터를 수집한 사례가 있었는데 출판사에서는 해당 IP의 접속을 영구 정지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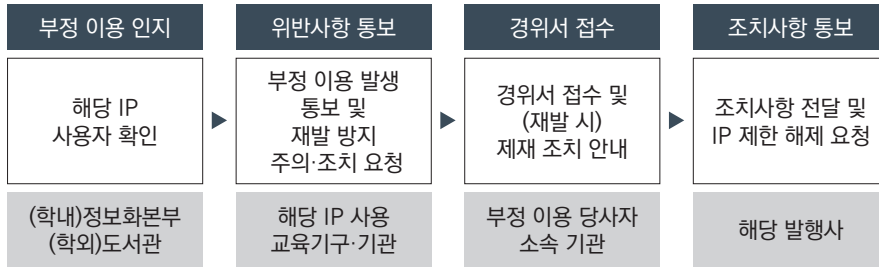
마. 임의 가공 및 상업적 목적으로의 이용

출판된 논문을 저자나 출판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가공·편집·배포하는 등의 행위 또한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 출판된 모든 논문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편집, 가공하는 것도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 없이 웹이나 서버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모든 자료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상업적인 이용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4. 전자자료 부정 이용 발생 시 도서관 조치 및 한계

앞서 밝혔듯 부정 이용이 발생하면 그 즉시 해당 IP의 접속이 차단되어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차단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IP를 조회하여 이용자를 확인 후, 해당 교육기구·기관(이후 '기관')에 공

문을 발송하여 부정 이용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부정 이용 당사자에게 사유를 확인한 후 경위서가 포함된 공문을 도서관에 회신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회신받은 경위서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출판사에 보내 차단 해지 요청을 하며 출판사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서비스 중단 해제가 완료된다. 일부 출판사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을 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일정 기간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복적인 부정 이용의 발생은 매해 진행되는 구독 계약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절차와 모든 조치사항을 공문을 통한 근거자료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 이용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아래 [표 6]은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학내 박사과정 학생이 반복적으로 공정 이용을 위반한 사례이다. 연구를 목적으로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을 대량 다운로드 받아 적발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각기 다른 저널을 반복적으로 대량 다운로드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례이다. 최초 발생 시 대량 다운로드가 부정 이용임을 인지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서관은 해당 이용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표 6 주요 부정 이용 사례

'22. 9. 10.(토)	Python 프로그램 활용 ACM Digital Library 논문 파일 대량 다운로드에 따른 해당 IP 영구 차단 → 경위서(학위논문용 데이터 수집) 접수 후 발행사에 해당 IP 차단 해제 요청
'22. 10. 2.(일)	EMBO Journal 2,000여 건 대량 다운로드에 따른 해당 IP 일시 접속 제한 → 경위서(동일 목적으로 URL의 DOI 번호 변경 후 수작업 다운로드) 접수
'22. 10. 1.(토) '22. 10. 2.(일) '22. 10. 4.(화)	도서관 Proxy 서비스를 통한 Science 저널 논문 대량 다운로드로 도서관 Proxy IP가 2시간씩 총 6시간가량 접속 차단(경위: EMBO Journal과 동일) → (기관) 해당 IP 저널 접속 차단, (당사자) 도서관 출입 제한 10일, 학외접속 차단 1개월

5. 전자자료 공정 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대량 다운로드 및 부정 이용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부정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이 장에서는 전자자료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이용자들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했던 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시도를 공유하고자 한다.

가. 홈페이지 안내 문구 강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장 방문 빈도가 높은 페이지는 학술DB 페이지이다. 2023년 1월 기준 무려 27만 4천 회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는데⁶⁾ 그만큼 학술DB 페이지가 전자자료 이용의 주요 관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도 전자자료의 공정 이용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있었으나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자자료의 부정 이용 사례가 누적되어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중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DB 페이지 내 수록된 안내 문구를 강화하였다. 부정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안내문에는 부정 이용 및 대량 다운로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기재하였다.

- 학술 DB 이용 안내

학외에서 접속하는 경우, 학외접속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출판사에서는 전자자료의 대량 다운로드, 전권 다운로드 등 부정이용 발생 시 서울대에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목적으로 대량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미리 도서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ibser@snu.ac.kr)

[부정이용 및 대량 다운로드 기준]

※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부정이용 및 대량 다운로드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부정이용 발생 시 해당 IP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서울대 전체 이용을 차단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ID/PW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 많은 양의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 책 한 권 전체, 저널 이슈에 있는 논문을 모두 다운로드 하는 경우

* 해당 사이트에 접속 시 20건 이상의 논문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대량 다운로드 금지

*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예: Python, Web Crawler 등)

* 서지관리프로그램(EndNote, Mendeley, Zotero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량의 논문 원문을 수집하는 행위 포함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 없이 임의로 전자자료를 편집·가공·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DB 이용문의

☎ 02-880-5300

✉ libserv@snu.ac.kr

DB 구입문의

☎ 02-880-5287

✉ libser@snu.ac.kr

학외접속 문의

☎ 02-880-5294

✉ e-res@snu.ac.kr

그림 1 강화된 전자자료 공정 이용 안내 문구 반영 화면

나. SSO 인증방식 도입

전자자료의 대량 다운로드나 부정 이용이 발생하면 해당 출판사는 해당 IP의 접속을 즉시 차단하게 되는데 일부 출판사의 경우 서울대학교 전체 IP의 이용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 부정 이용을 하지 않은 다수의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다른 대체 계정 제공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았으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합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인포그래픽 중 '홈페이지 방문 페이지 순위' 항목 참조(<https://lib.snu.ac.kr/about/statistics/infographic/>)

SSO 인증방식을 통해 접속할 경우 해당 전자자료 이용 시 포털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학외 접속 메뉴를 거치지 않아도 학교 밖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부정 이용이 발생하여 전자자료 접속이 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계정만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학내 전 구성원이 피해를 보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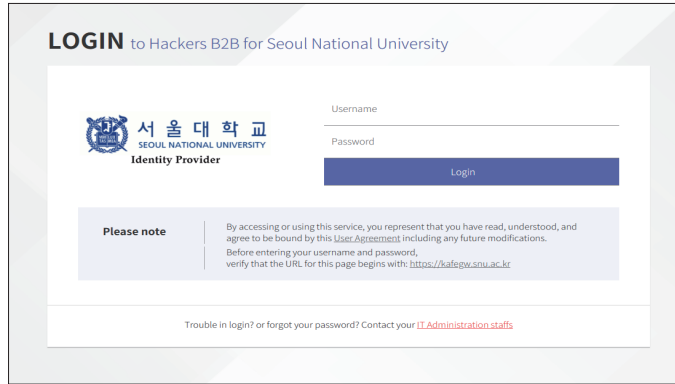


그림 2 SSO 인증방식을 통한 접속 화면

다. 홍보 대량메일 정기적 발송

부정 이용 및 대량 다운로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홍보 메일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 홍보 메일은 국문, 영문으로 각각 제작되어 발송되었고 부정 이용 및 대량 다운로드의 기준과 최근 발생한 학내 부정 이용 사례, 학내 제재 조치를 수록하여 부정 이용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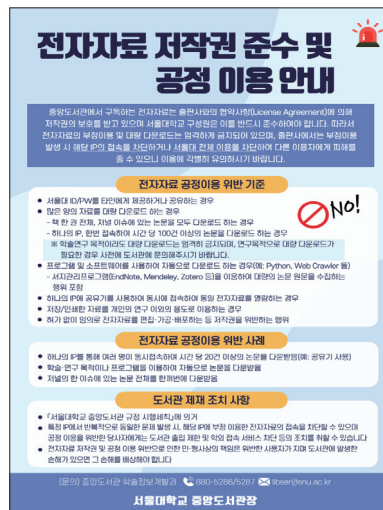


그림 3 홍보메일 발송 이미지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는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어 도서관이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이를 제재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부정 이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의 세부 내용으로 1회 위반의 경우보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고의성을 감안하여 더 무겁게 보고 제재를 강화하였다.

5. 향후 계획

중앙도서관은 구독 중인 방대한 양의 전자자료를 학내 연구자들이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수월성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저작권법과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공정 이용의 범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인증방식 및 도서관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 이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자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별 계약사항 분석과 저작권 파악이 선제 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정 이용에 대한 인식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2. 12. 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서울: 서울대학교. 출처: <https://lib.snu.ac.kr/about/libraries/central-library/c-policy/c-bylaws>
- 서울대학교 기획처 (2022).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21년판. 서울: 서울대학교.
- 저작권법. 법률 제18547호. (2021).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 Pamela Samuelson (2021). Text and data mining of in-copyright works: is it legal? Communications of the ACM, 64(11), 20–22. Available: <https://dl.acm.org/doi/pdf/10.1145/3486628>
- John X Kelly (2016. 2. 9.). The text and data mining copyright exception: benefits and implications for UK higher education. Jisc. Available: <https://www.jisc.ac.uk/guides/text-and-data-mining-copyright-exception>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6. 12.). Guidance: Exceptions to copyright. GOV.UK. Available: <https://www.gov.uk/guidance/exceptions-to-copyright>